인문계라도 수리영역 포기 말아야

■ 고3 여름방학 수능준비 이렇게

광주·전남지역 고 3 수험생들이 13일부터 여름방학에 들어간다. 고 3수험생에게 여름방학만큼 공부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시기는 없다. 특히 2008학년부터 수능과 내신 모두 등급만 전형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이에 맞춰 여름방학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연말에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 여름방학을 알차게 보내는 법을 살펴봤다.

◇수능 준비에 최선을 다하라 = 6월 모의수능 결과보다 학생부 성적이 우수해, 12일부터 시작되는 수시 1학기 모집에 지원하는 수험생이라도 수시 1학기에 절대 '올인'해서는 안 된다. 만약 불합격할 경우 슬럼프에 빠질 수 있고 이후 입시일정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지 못해 수시 2학기와 정시 모집에 실패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수시 2학기와 정시 모집을 염두에 두고 수능과 대학별 고사를 4대 6의 비중으로 나눠 대비하도록 한다.

수시 1학기에 '올인'은 금물
전 영역 고른 등급 확보 중요

6월 모의수능 결과와 학생부 성적이 비슷한 수험생의 경우 수시와 정시를 병행해 대비해야 하며, 특히 모의수능 결과가 좋아 정시모집을 목표로 하는 수험생은 영역별·과목별 등급을 끌어올리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4개 영역 모두 준비하라 = 4개 영역 모두 준비하는 것은 기본이다. 탐구영역도 3개 과목 이상 준비하도록 한다. 상위권 학생의 경우 서울대 등 주요대의 수리영역 반영비중이 큰 만큼 인문계라도 수리영역을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 등급제 시행에 맞춰, 특정 영역에서 만점을 받기보다는 전 영역에서 골고루 일정 수준의 등급을 받도록 해야 한다.

언어영역의 경우 독해능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짧은 시간 내에 지문을 정확하게 분석적으로 읽어내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 문학작품은 특정 갈래에 치우치기보다는 다양하게 학습하되 작품들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생각하며 공부하도록 한다.

수리영역은 하루에 1시간 정도 시간을 안배해 수학 문제를 풀면서 수학적인 감각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다. 많은 양의 공부보다 부족한 단원을 집중 공략하고 자기 수준에 맞는 문제집을 완전히 숙지한 뒤 조금 더 어려운 난이도의 문제에 도전하면서 실력을 쌓도록 한다.

외국어영역은 기출문제를 통해 어휘와 구문 파악 능력을 길러야 한다. 어휘를 공부할 때는 다양한 의미와 파생어를 함께 암기해야 하며 반드시 예문을 통해 익혀 나가야 한다. 듣고 푸는 문제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문제풀이 후 대본을 통해 대화 및 담화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자주 사용되는 표현은 암기하도록 한다. 변별력을 강화하기 위해 3~5문항 출제되는 고난도 문제에 대비해야 하며, 실전 문제 풀이를 통해 자신만의 문제 풀이 속도를 터득해야 한다.

사회탐구영역은 교과서의 주요 개념과 원리들을 주제별로 계통화하고, 전체적인 흐름을 하나의 표로 구조화해 노트필기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최근 사회적 현상으로 대두되고 있는 시사 문제에 대한 교과 응용력을 길러야 한다. 사회 변화의 모습을 파악하고 그 원인을 분석하며 결과를 예측할 수 있도록 시간과 공간의 변화를 꿰뚫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

과학탐구 영역은 기초부터 차근차근, 기본 개념과 용어부터 이해한 뒤 과목별 출제 빈도가 높은 단원 중심으로 기출 문제를 풀며 실력을 다지도록 한다. 탐구 활동과 교과 내용을 연관지어 체계적으로 정리해두는 한편 출제 빈도가 낮아 평소 소홀하게 여겼던 개념들도 반드시 체크해 두어야 한다.

사회탐구나 과학탐구 영역에서 선택 과목을 변경하려면 단기간 최고의 효율을 올릴 수 있는 전략을 세워야 한다. 교과의 핵심 개념을 이해할 수 있는 교재를 선택하여 학습하되, 동영상 강의 등 자신에게 맞는 매체를 최대한 활용해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단기간에 큰 맥락을 파악하려면 기출 문제를 반복적으로 풀어보면서 실전에 대한 감각도 동시에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 〈도움말:유웨이에듀〉

/황태종기자 hwangtae@kwangju.co.kr

여름방학을 이기는 수험생 10계명

1. 자신의 취약부분을 확실히 파악하고 집중적으로 학습하라.
2. 월단위, 주단위, 일단위로 구체적인 학습 계획을 짜라.
3. 일주일 한번 (5시간을 넘지 않게)은 긴장을 풀 수 있는 시간을 가져라.
4. 수능 실제 시간에 맞춰 되도록 아침 일찍 일어나서 공부를 해라.
5. 자신이 좋아하는 과목으로 하루를 시작하라.
6. 낮잠은 20분 내로 자라.
7. 하루에 30분 정도는 적당한 취미시간을 가져도 좋다.
8. 식사는 되도록 거르지 말고 영양분을 골고루 섭취해라.
9. 매일 목표 대학을 떠올리며 '나는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져라.
10. 자신과 목표가 비슷한 경쟁자와 연락하며 서로를 독려하라.

■수준별 수능준비 전략

수능	평균등급 1~2등급	• 전 영역 1등급을 목표로 한다. 평소 1등급을 받지 못했던 영역이나 과목에서 특별히 취약했던 단원을 파악, 방학동안 1등급으로 올릴 수 있도록 한다. • 1등급과 2등급을 가르는 기준인 영역별 고난도 문항에 대비하자 • 수리영역은 반드시 1등급을 유지할 수 있도록 평소 부족했던 부분을 마스터 한다.
	평균등급 3~4등급	• 평균등급 2등급을 목표로 공부 시간을 늘려보자. 조금만 더 노력하면 충분히 가능하다. • 탐구영역은 시간투자에 비례해서 등급 상승을 노려볼 수 있으므로 전략영역으로 삼되, 언어·외국어영역은 꾸준히 페이스를 유지해야 하며, 수리영역은 절대 포기하지 말고 취약 단원위주로 집중 학습하도록 한다.
	평균등급 5등급~	• 열심히 하는 만큼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많으므로, 수능을 포기해서는 안된다. • 혼자 공부하는 것이 어렵다면, 학원이나 온라인강의 등을 통해 도움을 받는 것도 좋다. 단, 전반적이거나 개론적인 강의는 시간만 낭비할 뿐이므로, 본인이 특히 취약한 영역 및 단원을 선택해서 집중적으로 학습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다.

2008 대입 전형 일정

일시		입시 일정		
		수시1	수시2	정시
2007년	7월	• 7/12~7/21 – 수시1 원서접수 • 7/22~8/31 – 수시1 전형 및 합격자 발표		
	8월	• 7/22~8/31 – 수시1 전형 및 합격자 발표	• 8/31 – 수시2 학생부 작성 기준일	• 8/8 – 수능 D-100
	9월	• 9/3~9/4 – 수시1 등록	• 9/7~12/11 – 수시2 원서접수	
	10월			• 10/17 - 수능 D-30
	11월	〈11/15 – 수능 시험일〉		
	12월		• 12/16 – 수시2 합격자 발표 마감 • 12/17~12/18 – 수시2 등록	• 12/7 – 정시 학생부 작성 기준일 • 12/12 – 수능 성적 통지일 • 12/20~12/26 –정시 원서 접수 • 12/27~2/1 – 정시 전형
2008년	1월			• 12/27~2/1 – 정시 전형
	2월			• 2/4~2/5 – 정시등록 • 2/14 – 미등록 충원 등록 마감 • 2/16~2/29 –미등록 충원 마감

광주 인화학교 사태 어떻게 돼가나

학생 성폭행한 교직원 복직 '갈등'

광주지역 21개 사회단체로 구성된 광주 인화학교(청각장애 특수학교) 성폭력 대책위원회가 인화학교 사태의 적극적 해결을 촉구하며 지난 10일부터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지역사무소에서 점거농성 중이다.

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행정실 직원에 대해 법인 이사회가 최근 '혐의가 없다'며 복직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나아가 교직원의 학생 성폭행으로 촉발된 학사운영 파행사태가 뚜렷한 해법을 찾지 못한 채 장기 표류하면서 정상적인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데 대한 강한 항의의 뜻도 담고 있다.

성폭력 대책위 인권위서 농성

◇인화학교는 = 1956년 설립된 전남농아원이 모태다. 광주시 광산구 삼거동에 있으며 사회복지법인인 우석(이사장 강선용)이 운영하고 있다. 유치부~고등부가 있으며, 현재 초등부 18명, 중등부 12명, 고등부 17명이 재학 중이다. 유치부 13회, 초등부 44회, 중등부 35회, 고등부 11회 등 모두 1천576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학생 성폭행으로 사태 촉발 = 법인 이사장의 친인척 등 교직원 6명이 지난 2000년부터 2004년까지 재학생들을 성폭행했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2005년 6월 피해학생이 광주 여성장애인 성폭력상담소에 상담을 의뢰하면서 뒤늦게 학교 밖으로 알려졌다. 광주지역 21개 사회단체는 '광주 인화학교 성폭력 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2005년 11월 학생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교직원 2명이 구속됐다.

◇법인 이사 해임 문제로 사태 악화 = 국가인권위원회는 2006년 8월 추가 성폭행 가해자 6명을 고발하는 한편 광산구청에 법인임원 해임을 권고했다. 광산구청은 이에 따라 법인임원 해임 명령을 내렸으나 법인은 이에 반발해 법원에 해임명령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또 이사 4명, 감사 2명 등 해임 대상자를 모두 교체했다. 이로 인해 소 당사자가 없어져 법인임원 해임을 둘러싼 소송도 각하됐으며 재단 측과 시민단체의 골도 깊어졌다.

◇학생 등교거부 및 천막수업 시작 = 법인 측은 2007년 2월 학교정상화를 위한 수화능력교사채용과 문제교사 징계를 약속했으나 실행하지 않았다. 이에 중·고등부 학생 18명이 3월 19일부터 등교를 거부한데 이어 4월 26일부터 광주시교육청에서 천막수업에 돌입했다.

교장, 폭력혐의 학생들 고소

시 교육청과 대책위는 인화학교 교육정상화에 합의, 2008년까지 인화학교의 모든 교사들이 수화통역사 자격 취득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7월 이후 교사 결원이 발생할 경우 법인이 청각장애 교사를 우선적으로 채용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또 학생·학부모 등이 교직원의 비리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면 감사를 하고 문제 교직원에 대한 징계 의결을 요구하는 것을 비롯한 법인에 대한 감사 및 장학지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학생들 학교장에 폭력 = 천막 수업을 그만둔 학생 16명은 지난 5월 28일 등교 첫날 교장실에 난입, 문을 잠근 뒤 혼자 집무 중이던 이모(여·54) 교장에게 밀가루와 달걀, 빨간 물감을 던졌다. 이들 학생들은 이 교장이 모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자신들을 '거짓말하는 피노키오'에 비유하며 무시했다고 오해해 폭력 사태를 야기했다. 이 교장은 이들 학생들을 폭행·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고, 경찰은 이들을 모두 불구속 입건했다.

이에 '광주 인화학교 아이들을 사랑하는 시민의 모임'은 지난 4일 광주시교육청과 광주지검에 5천200여명이 서명한 탄원서를 제출, '학생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만큼 형사처벌보다 교육의 틀에서 관용을 베풀어 달라'고 요청했다.

공립 장애학교 추가설립 시급

◇대책위 인권위 점거 농성 = 법인 이사회는 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해 8월 검찰에 고발된 행정실 직원에 대해 지난 5월 복직 결정을 내렸다. 피해자와 교사들의 진술이 엇갈리고 검찰에서 공고시간 경과로 '공소권 없음'결정을 내린 만큼 성폭력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사장 친척의 소개로 학교에 들어온 것으로 알려진 이 직원은 6월부터 다시 출근했다.

대책위는 "성폭행 혐의로 고발당한 교직원이 복직하는가 하면 지난해 인권위에서 권고한 피해학생에 대한 치료 및 성 상담 프로그램이 형식적으로 실시되는 등 장애학생들의 인권과 교육권이 침해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윤민자 대책위 집행위원장은 "장애 학생들에 대한 인권보호 차원에서 인권위가 적극적인 중재를 해줄 것을 기대하며 점검농성에 돌입했다"며 "학교운영 정상화가 아닌 공립 장애학교 추가 설립 등 대안을 강구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황태종기자 hwangtae@kwangju.co.kr

인화학교 사태 일지

▲05. 6 : 성폭행 피해 학생, 여성장애인 성폭력 상담소에 상담 접수
▲05. 7 : 인화학교 성폭력 대책위원회 구성
▲05.11 : 성폭행 가해 교직원 2명 구속
▲06. 8 : 인권위 법인임원 해임 권고안 발표
▲06. 8 : 광산구청, 법인임원 해임 명령
▲07. 3 : 학생 등교거부
▲07. 5 : 학교정상화를 위한 협약 체결, 천막교실 철거
▲07. 5 : 학생 16명, 교장에게 계란 및 밀가루 투척
▲07. 5 : 성폭행 혐의 가해 행정실 직원 복직
▲07. 6 : 학생 16명 폭행·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
▲07. 7 : 대책위,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지역사무소 점거농성

교원임용고시의 모든것!
곽내영고시학원 여름방학특강
http://www.naeyoung.com
곽내영고시학원 062)529-0090

새롭게 단장한 신양파크호텔
Summer Wedding Festival
25,000부터
062)228-8000 062)228-4711~2